

Ted Hildebrandt 박사, 제2권의 찬양, 세션 1

정식 컨텍스트

© 2024 테드 힐데브란트

시편 제2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Dr. Ted Hildebrandt입니다. 이것은 시편 2권의 정경적 맥락인 첫 번째 세션입니다.

좋은 오후예요. 우리는 시편 제2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관한 일종의 미니강의 시리즈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Kriegel을 위해 쓴 기사인 The Biblical Foundation of Worship이라는 2018년에 출판될 기사의 확장판입니다.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론의 방식으로, 이 내용은 책의 기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앞뒤로 많이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2권의 특성과 단위로서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제2권의 정경적 맥락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시편의 세 주인공, 즉 왕과 시편 기자와 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사한 원수는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하며 함정에 빠뜨리고 삼키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과 보호를 부르짖습니다.

신 또는 인간의 왕은 구출하고,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신성한 왕을 찬양합니다. 제2권의 제의적 맥락도 축제 회중 가운데 제사와 음악을 통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표현되는 맥락으로 검토될 것이다.

그런 다음 애도는 흔히 칭찬의 근거가 되며 심지어 비난도 칭찬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양의 부르심, 찬양의 원인, 찬양의 방법, 찬양의 장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찬양 자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는 시편 제2권에 나오는 현대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몇 가지 암시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제 소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면서 버튼을 클릭했어야 했지만, 우리는 책의 표준적인 맥락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미니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세 명의 주인공, 즉 왕, 시편 기자, 원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의 제의적 맥락, 특히 우리는 시편 제2권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기초로 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칭찬의 근거로 그 비난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실제로 찬양 자체, 찬양으로의 부르심, 찬양의 원인, 찬양하는 방법, 찬양의 장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발표는 현대 예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소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편 제2권의 정경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테힐림(Tehillim)인데, 이는 단순히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단어인 할렐(Halel)이라는 어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그 단어에 익숙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야훼를 찬양하거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 토라나 오경과 평행을 이룬다.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 첫 번째 책이 시편 1장부터 41장까지이며 주로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권은 다윗의 두 번째 모음집으로,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이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각 책에는 찬양의 결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중 아멘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이 멈췄다가 앞으로 나아간 단위를 알 수 있습니다. 각 책의 다음 마지막 구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마지막 구절을 하나하나 뽑아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1권의 끝이고 이것이 40장 13절입니다. 그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또 아멘.

그리고 이것이 1권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권을 펼쳐 보면 72장 20절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라, 그러면 또 다른 찬양이 있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이중 칭찬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아멘. 그리고 실제로 시편 72편 20절은 실제로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권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아주 명확한 결말이군요. 이로써 다윗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3권도 마찬가지로 시편 89편 52절로 끝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아멘. 그래서 두 배의 아멘과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4권, 106장 48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하여라. 주님을 찬양.

그래서 거기에서 단 한 번의 아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권은 마지막 시편인 시편 150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문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은 시편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는 할렐루야가 시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시편 2권인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를 통해 하나님 예배의 특징과 독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모세의 율법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토라에는 다섯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과 평행을 이루는 다섯 권의 책이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편과 함께 다시 발전되었습니다. 다윗의 작품은 기원전 1,000년 정도이고 마지막 시편은 유배 기간이나 유배 후 유배 기간인 586년경이나 그 즈음, 또는 586년 조금 이후에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약 400년에 걸쳐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책의 특징을 살펴볼 것인데, 모세 오경은 크게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다섯 권의 응답이 있습니다. 다윗의 제목이 1권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3장부터 41 장까지의 제목은 대부분 다윗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첫 번째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권에는 두 번째 다윗 모음집이 포함되어 있으며 50장부터 70장까지 좀 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책인 첫째 장 42-49장에는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아들들은 땅이 열려 고라를 삼키는 16장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중에 그들은 그곳에서 시편 형식의 예배, 제의적 예배에 참여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43편은 사실 고아 시편이다. 그리고 고아 시편은 무엇입니까? 고아 시편은 제목이 없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작 부분, 시편 부분, 후렴 부분에서 왜 내 영혼이 낙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왜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 하는가?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 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내 영혼이 낙심하느냐에 대한 이 후렴은 42장 5절, 42장 11절에서 발견되며 또한 42장과 43장을 내가 시편 쌍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연결하는 43장 5절에서도 발견됩니다. 따라서 42편과 43편은 시편 1장과 2장 또는 9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쌍과 유사한 한 쌍의 시편을 형성합니다.

시편 42편부터 43편, 44편, 45편은 모두 마스크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2, 43, 44, 45는 모두 마스크일 또는 교훈용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43편부터 49편까지는 모두 음악감독의 칭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들은 기본적으로 42편에서 49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에는 아삽 모음집에서 가져온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삽의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아삽 모음집은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50편은 아삽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삽 모음집에서 이렇게 끌어낸 것일까요? 그것은 주로 2권에 있는 인접한 시편 51편과의 주제적 연관성 때문입니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천 개의 언덕에 가축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선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50편과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 선한 제사를 드리는 시편 51편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제사 사이에 대조가 있습니다. 시편 51편부터 70편까지는 다윗의 제2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그걸 알아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음악 감독을 위한 Maskil을 얻었고 아마도 돌아가서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죄송해요. 버튼을 눌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로 아삽 시편 50편은 시편 51편과의 연관성 때문에 앞으로 당겨진 아삽 시편입니다.

시편 50편은 그가 천 개의 언덕 위에 소떼를 소유했다는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설명됩니다. 그는 당신의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희생을 음식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음식을 원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고, 천 개의 언덕에 소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것이 선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다윗이 선한 제사를 드리고 시편 51편부터 70편까지입니다. 이것을 얻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응, 됐어. 시편 51편부터 70편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다윗 모음집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작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1~62편과 64~70편에서는 음악감독이 제목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다. 시편 71편은 고아한 시편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윗이 노년에도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72편은 좀 흥미롭습니다. 여기 메모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2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시와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아들 이새의 기도가 끝납니다.

시편 71편에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시점에서 연약한 노인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노년에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시편 71편과 72편 사이의 반응은 대체로 솔로몬이 시편 72편에서 솔로몬 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시편 71편과 72편 사이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왕과 하나님께서 연약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당신은 다윗이 연약한 시편 71편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내용과 솔로몬이 힘을 얻어 정의를 위해 나가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시편 72편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윗이 허약하고 아비삭이고 그 모든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열왕기상 1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2장과 3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3권은 아삽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3장부터 8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엘로힘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엘로힘 시편은 시편 42편부터 83편까지입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Yahweh)가 드물게 사용된다는 관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엘로힘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야훼가 2권에서 27번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야훼(Yahweh)는 여호와(Lord), 대문자 L, 대문자 O, 대문자 R, 대문자 D로 번역됩니다. 엘로힘(Elohim) 사용의 증가, 엘로힘(Elohim)은 하나님(God)으로 131번 번역됩니다. 따라서 야훼라는 단어가 27번 나오는데, 시편에서는 아주 적은 숫자지만 시편에서는 아주 큰 131번까지 나옵니다. 엘로힘 시편은 시편 42편부터 83편까지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나머지 부분에서 야훼와 엘로힘의 비율이 5:1인 것과 대조됩니다. 즉, 시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야훼가 다섯 번 사용되었고,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에 대해 다섯 번에 한 번씩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260번, 엘로힘은 56번 정도 사용하신 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고 싶고 이것에 대한 맛을 얻고 싶다는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 책 1권, 4권, 5권이 야훼에 대한 호의를 대략 6대 1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2권과 3권은 엘로힘을 대략 6대 1로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며, 이 책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엘로힘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것을 만드는 차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명확하게 해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런 다음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따라서 제1권이 있는데, 제1권에서는 야훼의 사용 횟수가 약 85번입니다.

야훼(Yahweh)라는 표현은 주님(Lord)으로 번역됩니다. 엘로힘의 사용은 단 15번이다. 여기 4권에서는 야훼가 86번 사용되었고, 엘로힘 하나님은 14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에서는 야훼가 89번 사용되었고, 엘로힘은 11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대비를 살펴보세요. 따라서 1권, 4권, 5권에서는 야훼가 주로 6 대 1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2권에서는 야훼가 14번만 사용되었고 엘로힘은 86번 사용되었음을 주목하십시오. 3부 A권도 마찬가지로 야훼에 대해서는 13회, 엘로힘에 대해서는 45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부분을 왜 함께 모아 이것을 엘로힘적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제2권과 제3권의 첫 부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3권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2대 1, 31장에서 16장, 야훼 31장, 엘로힘 16장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엘로힘 시편과 엘로힘에 대한 강조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권에서 우리가 있는 곳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은 평행하고 거의 동일한 시편, 즉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입니다. 이 두 시편은 단어 하나하나가 거의 동일합니다. 시편 14편과 53편입니다.

시편 14편은 1권에 있고, 시편 53편은 2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시편을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스위치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과정을 진행해 보세요.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시편 53편은 엘로힘 시편에 있고 시편 14편은 첫 번째 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야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Yahweh)라는 단어를 주님(Lord)으로 번역합니다. 이제 53장으로 넘어가면 이 구절이 정확히 같은 구절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즉 엘로힘이 하늘에서 내려다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에서 정확히 평행을 이루는 야훼라는 이름에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명확하게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야훼)을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시편 53편을 보면 누가 하나님(엘로힘)을 부르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서는 야훼가 주님으로 사용되고 여기서는 엘로힘이 하나님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3편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는 일관됩니다. 14:7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러분은 시편 14편과 53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시편 14편과 53편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요새를 회복하실 때에 그 분이 여호와이심을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여기서 추측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하실 때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편이 서로 정확히 평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의 야훼에서 두 번째 책의 엘로힘 하나님으로 얼마나 일관되게 이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로힘 시편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매혹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2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책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책을 원합니다. 저는 오히려 1권이나 2권의 흐름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제2권의 정경적 맥락의 또 다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느슨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제2권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우리는 43편이 고아 시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시편은 후렴구 때문에 한 쌍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의 후렴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둘은 한 쌍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런 일이지요. 그는 축제의 군중 속에 행렬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 기자는 북쪽 헤르몬 산 아래 포로와 혼돈의 물을 직면하게 되며(42:6), 두 번이나 질문으로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42번과 43번에서 나오는 주요 질문입니다. 그는 적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42장과 43장에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그는 북쪽, 헤르몬 산 아래 위쪽에 있고 그의 원수는 그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심지어 그를 괴롭힌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집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3.4. 그 희망은 시편 기자가 세 번이나 반복한 후렴을 인도하고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도 그를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를 찬양할 것이다. 시편 42:5, 11, 43:5 5절의 후렴에서 후렴은 세 번씩 약 6절씩 분리되는데, 이는 시편 1편과 2편처럼 이 두 시편, 42편과 3편을 한 쌍으로 묶습니다. 소개 시편 쌍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 2편은 1권을 소개하고, 실제로 시편 1, 2편은 시편 전체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42편과 43편은 1편과 2편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짝짓기 기술을 사용하여 2권을 소개합니다. 또한 시편 9편과 10편도 한 쌍으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시편 44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44편은 a, quote, I, me, my 에서 a we, us, our 로 이동하는 공동 청원과 함께 시편 2행 42.3, 43의 개인 간구 또는 애도를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개인이고, 42, 43은 개인의 애도입니다.

그리고 44절에 있는 것은 공동 애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우리는 1인칭 단수가 아닌 1인칭 복수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지원을 거부하고 부재한 결과로 적들 앞에서 패배를 한탄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우리는 1인칭 스타일로 읽습니다.

내가 이걸 알아냈는지 한번 볼까? 예, 42번을 읽었습니다. 왜 내 영혼이 낙담 한 걸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노니 첫 번째 사람을 주목하소서 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1인칭 단수. 시편 44편에는 1인칭 복수형인 we, us, our... 로의 중요한 이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기에서 읽고 귀로 들었나니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으로다 우리 발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쳐서 자칼의 소굴로 만드셨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 애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 나 대신에 우리, 우리, 우리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5편은 기본적으로 왕의 즐거운 결혼과 시편 45편의 왕에 대한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책에서 소개하는 그 사람이 제기하는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그가 질문에 사로잡혀 있고 적의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46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시온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이제 46에서 48까지의 그의 대답은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제시하는 내용은 46장 4절, 48장 1절, 2절, 8절을 인용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하시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녀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안에 계시는가? 시온 내에서. 이것이 46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47 종류 에는 약간의 수정이 있습니다.

46장은 하나님이 시온을 다스리시며 47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내용이다. 그리하여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 시온에서부터 땅 끝까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거룩한 산인 시온산에 집중시키시는데, 그 곳은 큰 왕의 성, 48장 2절에서 큰 왕의 성이라 불립니다.

그러므로 시편 48편은 그 위대한 시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시편 48편은 예루살렘과 시온,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예배에 관한 위대한 시편입니다. 46편은 내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술로 끝을 맺는데, 이는 47편의 시편 기자의 마지막 대답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46은 47과 연결됩니다. 46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방 중에서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47장에서는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크게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46장 끝에 있는 이 승영은 47장에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땅 끝까지 올려 퍼지는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시편 48편 9절입니다. 시온, 시온 모티브는 5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흥미로운 점입니다.

잠깐 볼까요, 제 생각엔 이런 구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46에서 48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시온 주제의 연속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의 시편 51장 끝부분인 18절에서는 “주의 기뻐하심으로 시온을 번영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밋세바와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참회하는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강력한 진술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 이런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런 다음 52장으로 가십시오. 이 시편은 죄와 악한 사람들과 적들에 관한 매우 부정적인 시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합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무성한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은 물론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53편이 들어옵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다시, 시온 찬송이 지난 48장에서 벗어나 51장, 52장, 53장, 그 모티브로 들어가고 실제로는 여기에서도 55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55:14은 우리가 예배자들 사이에서 걸었던 하나님의 집에서의 행렬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예배자들은 축제 기간에 예배자들이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42장과 43장,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46장부터 55장까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거기서 예배하러 올라간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것은 되돌아갑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시편 제2권의 큰 부분입니다.

시온 성전에 하나님의 위치가 확립되면, 시편 49:12와 20의 후렴에 나오는 짐승들처럼 부자들이 멸망함에 따라 죽음 앞에서 부의 무력함을 폭로하는 지혜 시편이 이어집니다. 시편 50편은 시온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51.50 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며 자신의 무능력을 선언하십니다. 왜 그에게는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제물은 하나님을 위한 음식이 아니니라.

대신에 그는 내가 음식을 원하면 천 개의 언덕에 소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불렀던 위대한 노래인 시편 50편 9절부터 13절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를 맺은 후 크게 회개한 시편 51편은 당신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거나 그가 제사할 때 그것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분명히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제 조건입니다.

시편 51편은 참회하는 의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창조되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보여줍니다. 시편 51편 7절과 10절. 시편 51편은 시온을 번영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라는 부르심으로 끝맺으며, 이는 46장부터 48장까지의 시온 찬송가와 연결됩니다.

시편 50편은 의로운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52-53편은 살인적인 에돔 사람 도엑의 비유를 통해 악한 자들을 묘사합니다. 도엑은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의 헛됨이라는 주제로 되돌아가서 시편 49편 20절과 연결되고 마음 속으로 말하는 어리석은 자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방금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2017년 스칸디나비아 구약성서 저널에 보타(Botha)라는 사람이 발표한 새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기본적으로 52에서 55까지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 주제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51부터 55까지, 보타는 52부터 55까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주장 중 일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52에서 55까지가 마스크일이라는 용어 또는 교훈의 시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53편, 54편의 제목과 저는 55편, 예, 55편의 유사한 유형의 내용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네 편의 시편을 음악 감독, 마스크, 또는 에돔 사람 도엑이 더러운 짓을 했을 때 다윗에게 지시한 시편으로 연결합니다. 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크인 마할랏 에 따른 음악 감독의 칭호입니다. 이것은 다시 음악 감독, 현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감독, 다윗의 마스크, 다윗의 마스크, 지파이트가 더러운 일을 했을 때의 다윗의 마스크에 대해 어떻게 평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음악 감독, 음악 감독, 현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감독, David의 Maskil. 다시 말하지만, 이들 제목에 4번을 묶어서 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편의 시편이 함께 묶인 시편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시편 52편을 계속하기 전에 좀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신뢰한다는 주제는 시편 52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신하지 않고 풍성한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 속에서 피난처를 구한 사람을 보십시오. 시편 55편의 대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며, 주는 악인을 멸망의 구렁이에 빠뜨리시리이다. 피에 굶주린 자들과 사기꾼들은 그들의 날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55절에서는 부를 신뢰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두 가지 모두 흥미롭게도 예레미야 9장 22~23절에서 신뢰, 자랑, 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52편부터 55편까지를 예레미야서 9장과 연결합니다. 저는 그 연결이 매우 흥미롭고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2편 2절부터 4절에서는 혀가 위험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네 혀는 날카로운 면도칼 같구나, 너 배신하는 자야. 그리고 시편 55편에서는 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말은 버터처럼 매끄럽지만 그의 마음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위로가 되지만 뾰힌 칼과도 같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서 9장 7절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네 편의 시편과 예레미야 9장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시편, 특히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과의 연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시편 사이의 큰 연관성.

시편 52편과 54편은 52:9, 9, 54:6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강조함으로써 연결됩니다. 그리고 시편 54편과 55편은 모두 하나님께 들으라는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54.2, 55.1, 2. 이 마사킬 시편 52편부터 55편까지의 문자열 다음에는 Miktam 이라는 제목 의 시편 그룹이 나오고 여기에 이것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Miktam 56부터 60까지는 Miktam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Miktam 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Miktam 이므로 텍스트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 모임집의 음악 감독은 이 믹탐 에 시편 56~60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52~55편은 교훈을 위한 마사킬 입니다.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는 모두

Miktam이라는 용어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Miktam 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63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아마도 42장과 43장에서 그가 불안하고 신성한 부재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성소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하나님의 부재가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46장부터 52장, 53장까지는 시온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63장에서는 내가 손을 들고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겠다고 성소에서 맹세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63편 2절과 13절 이하입니다.

앞편 시편에서는 제2권의 나머지 부분 전체를 통하지 않고도 간구와 탄식과 불평이 지배적입니다. 끝으로 다가갈수록 시편 65편부터 68편까지의 찬양이 시편처럼 나옵니다. 이제 그냥 달려가서 제가 이것을 조금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애도, 공동 애도, 우리, 우리, 우리 또는 개인 애도, 나, 나, 나의 찬송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65번부터 68번까지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71편은 연약한 다윗, 열왕기상 1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71편의 연약한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의 강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왕기상 2장부터 3장까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약한 다윗과 아비삭,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솔로몬과 그의 형제 아도니야가 왕위에 오르는 상황과 그곳에서 일어날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했습니다.

솔로몬의 힘에 대한 그와 같은 약함은 2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서 일종의 흥미로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이 연결고리인 2권은 하나님의 부재와 찬양의 장소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최초의 애도(시편 42편, 43편)로부터 하나님의 성 시온(46-48장), 지혜(49장), 그리고

이어서 이어진다. 시편 50편과 51편, 죄를 52편과 53편에서 제물로 바칩니다. 54~64편에서는 애도하고 56편과 57편에서는 한 쌍의 자비를 베푸소서로 시작합니다. 둘 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메아리, 42장에서 그려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모티프, 63장부터 시작되는 사슴이 물책을 혈떡이듯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런 다음 65장부터 68장까지 여러 찬송가를 통해 계속됩니다. 그리고 2권은 열왕기상 1장에서와 같이 시편 기자 다윗의 연약한 나이(시편 71편)에서 시편 72장의 활기 넘치는 솔로몬 왕으로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과 유사한 전환으로 마무리됩니다. 2, 3.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인 제2권은 시편의 많은 책들의 특징인 두 배의 찬양과 두 배의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권에는 시편 전체에 있는 것과 같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그들은 애도를 맨 앞에 실습니다.

그리고 시편 1권 3장부터 41장까지의 시편 중 많은 부분이 다윗의 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끝납니다. 시편 145-150편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애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2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도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시온으로 가다가 2권 끝 부분에 찬양의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책이 끝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그리고 책은 찬양과 이중 아멘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흐름, 찬양에 대한 한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한 일을 검토하고 하루만 통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테힐림(Tehillim)이라고 불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힐림은 할렐루야를 의미하는 할랄(halal)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제목은 찬양을 뜻하는 할랄(halal)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다섯 권이나 시편이 토라, 오경에 있는 모세의 다섯 권의 책과 일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권, 1장부터 40장, 2장, 42장부터 72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에 집중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3권, 73권부터 89권, 4권, 90권부터 106권, 5권은 107권부터 150권으로 끝맺습니다. 다윗의 찬양과 아멘, 기도가 끝나고 찬양과 아멘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책들 각각은 그것이 끝났음을 나타냅니다. 2권의 제목에는 다윗의 두 번째 모음집이라고 불리는 시편 51편부터 70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두 번째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모음집은 시편 3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고라 자손은 42장부터 4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71편에서 약해진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의 시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한 엘로힘 시편은 1권, 4권, 5권의 야훼 또는 주님이라는 이름이 시편 42편부터 83편까지 선호되는 엘로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14편을 비교했는데,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시편 53편을 말했습니다. , 같은 말이지만 엘로힘 시편에서는 이름이 야훼에서 엘로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로힘 시편은 우리 책 2권 40절, 42장부터 8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 었습니다. 탄식에서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세상 끝까지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책의 서사적 흐름. 보타 기사의 시편 52편과 53편 사이의 연결고리는 혀를 무기로 사용하는 마스크일입니다.

그리고 그 세 시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네 시편은 거기에서 매우 훌륭하게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다음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시편의 세 주인공을 소개하고 특히 이 세 인물이 시편 제2권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의 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 기본적으로 적은 조롱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수치를 주고, 불명예를 안겨 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며, 자기 혀로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시편에는 대적이 매우 강력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원수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간청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소서 하는 간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적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하나님은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발할 때 이 세 가지를 개발할 예정인데, 특히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은유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유는 시편을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실제로, 그 은유는 구약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세 캐릭터가 큰 역할을 하는데, 다음에는 이 세 캐릭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시편 제2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Dr. Ted Hildebrandt입니다. 이것은 시편 2권의 정경적 맥락인 첫 번째 세션입니다.